

일본연구소 제 21 회 수요집담회

일시: 2011.04.20.15:00

발표자: 진필수.

사회자: 김효진

제목:

일본신도시에 있어 이에제도의 변화와 지역조직의 양상-오사카 센리 뉴타운의 사례

연구배경

교토의 지구환경학종합연구소의 프로젝트에 관련하게 되어, 한국의 경관변화,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 관한 연구. 죽전과 서부이촌동 연구한 적 있다.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 발표하다보니까 선생님이 일본의 아파트 단지를 연구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시도하게 됨. 일본 본토와 전체사회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 시작한 연구이다.

발표의 준비 정도는

프로포절보다는 발전된 상태이지만 2차례의 답사를 통해 어느 정도 자료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2명 정도의 키인포먼트가 있다. 본인 스스로가 센리뉴타운 연구자이면서 정보제공장리다.

연구 초점과 연구 질문들.

분석의 초점은 전통적인 것과 대비되는 이에의 양상. (1)이에 제도의 해체와 변화의 양상에 대한 관심. 지역조직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연구의 초점이 신주민과 구주민의 관계, 도시의 지역조직의 형성 등이 기존연구의 흐름인데, 전반적으로 일본사회는 급격하게 지역조직이 해체된 사례가 적다는 인상인데, 뉴타운의 경우는 기존의 일본의 지역자치회의 양상과는 다르다. (2)뉴타운에서의 신주민이 만들어내는 조직. 가족조직으로서의 이에, 지역조직으로서의 문화를 분리해서 연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키나와의 촌락공동체를 보더라도 이에와 지역조직은 국가 등 다른 레벨의 사회조직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조직과 이에제도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조망. 지역조직이 이에의 유대감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센리뉴타운은 동아시아 최초의 뉴타운.

만국박람회에 맞추어서 공사완료. 수상, 황족들도 시찰하러 왔었음

동경의 대상이 된 아파트단지이기도 했다.

인구의 전체가 25%가 65세 이상으로 현재는 높은 수준의 고령화가 진전된 상태이고

세대주의 고령화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수가 감소 2004년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 경향이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3세대가 취학연령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해석. ..

센리는 사람과 주택이 함께 늙어가는 곳이다.

주택의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

한국은 재건축하는 경우 가능한 대규모로 하는데 센리의 경우에는 개인들이 모여서 한다. 타테카이가 문제가 되어 주민들 간의 재판도 찾고, 임대료 상승, 고층화 등의 문제가 대두됨.

나이가 들어서 단독주택의 노부부들은 택지 분할을 목적으로 해서 부지분할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센리뉴타운은 대표성과 특수성

대표성

- 오사카부의 계획도시라는 점
- 베드타운
- 공간구조나 주택형식

특수성

- 이에나 지역조직의 사회적 특성을 만들어내는데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일본의 뉴타운 중에 성공한 곳이 별로 없는데, 개발사업자, 주민의 측면에서 모두 성공적
- 아주 오래된 뉴타운이다. 40년 동안 동일한 지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뉴타운이면서 뉴타운적이지 않은 요소 다수 포함
- 후루사토의식의 형성
- 센리가 하나의 브랜드처럼 알려져 하나의 경제적 가치가 되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는 단위가 되기도 한다.

연구 질문에 대한 연구 내용

1세대는 이에,고향과의 끈을 끊는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뉴타운이라는 조건이 그것을 용이하게 만들어준 것이었다. 고독사도 불쌍한 것만은 아니다. 가족이나 지역관계 직장 관계의 사회관계의 전반적 모습 속에서 의존하던 관계를 없애나가는 과정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자기가 처음 가지고 있던 이에의 상은 농촌의 것이었다. 가독상속, 대가족제도, 등이었고 도시에서 일하면서 핵가족으로 살아간다. 1세대는 두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고 어디에 본인의 정체성을 두느냐가 선택의 문제였다.뉴타운에 들어와 핵가족 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했고, 고향과의 유대를 끊는 것을 선호했다. 하카마이리, 오봉때 고향 가기 등을 센리뉴타운 주민들은 별로 안가는 편이다. 센리뉴타운 주민들 중에서는 차남의 비중이 높다. 장남인 경우에도 고향과의 끈을 끊을 수 있는 모습이 가능했다. 아무튼 뉴타운에서 새로운 이에를 창설하고, 여기를 자기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의 사고들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죽은 사람의 묘를 어떻게 쓰는가.

개인화 되고 핵가족의 자유를 만끽하는 쪽으로 변화해오는 것이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연령이 높다. 마지막까지 자기 공간에 있다가 정말로 기력이 없을 때 노인홈에 들어간다.

나이를면서 지역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뉴타운 주민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후루사토 의식이 강하다.

도서관의 도서대출률이 전국 1위 퇴직자 증가에 따라.

일본에서 최초로 자동개찰기 만든 타운.

넓은 아파트 공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질의 응답>

1. 이에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에제도 이야기하면 가족내부 성원의 권력이나 구조를 가지고 이에라고 하는데, 이에제도가 장사나 사업 농사 등의 가업을 하는 가운데서 이에제도를 이야기하는데,...흔히 이야기하는 세대를 왜 이에라고 부르냐, 인류학에서 이에를 뭐라고 생각하냐.

답변: 법제도의 이에는 없어졌지만, 이에제도라고 이야기할 때 이에의 이념적 속성 염두에 둔 것이다. 이전 논의에서는 가족집단이나 가업을 이어가는 경영체냐의 논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의하고 있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집단이다. 이에라고 하는 것 하나가 영속적인 집단이 되어 가지고 개인들이 계속 이어나간다고 하는 것이다.

2. 뉴타운 일세대가 창설한 것은 가정을 꾸린 것이다. 이에를 창설한 것이 아니다.
3. 뉴타운이 아니더라도 도시화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한 현상이 생겨났다. 오늘 발표의 내용은 뉴타운만의 특수성 없는 신개발지 도시화의 일반적인 이야기다. 수도권 임금 생활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다.